

“천년고찰이 주민 돌봐야”... ‘투명’ 운영 원칙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맞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으로 꼽혔던 곳이다. 최근 이곳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 지역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려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미타사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부터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마음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이 옥수역 광장에서 열린 ‘옥수문화축제’를 즐기고 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부터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마음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이 옥수역 광장에서 열린 ‘옥수문화축제’를 즐기고 있다.

상덕 스님, 50년 지역 주민과 함께해 저소득·일반세대 맞춤복지 지원

성동구 지역은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재개발 등으로 저소득 세대와 일반 세대가 혼합돼 있다. 또 저소득 세대와 일반 세대가 혼재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소득의 차이도 커 복지혜택에 대한 욕구 또한 상이하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조사해 저소득 세대를 위한 기본적 생계형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족문화체험과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매년 70여 종 이상의 복지프로그램을 남녀 노소를 위해 실시하는 것. 특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수준별 영어회화반, 웰빙댄스, 고급 컴퓨터반 등을 개설하고 있다. 상담치료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복지관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화아동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자랑방과후교실’을 비롯해 문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부터 지역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마음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옥수역 부근에 마련된 광장과 미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매년 옥수문화축제를 개최한 것이다.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은 5월 24일 열린 ‘제4회 옥수문화축제 꽃보따리 당신! 끼 페스티벌’에 참가해 춤·노래 등 장기를 뽐내고 전통놀이마당, 가족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부대행사를 마련해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서울시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서 우수평가를 받고, ‘성동구청장 복지시설 우수 운영 표창패’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복지발전 표창장’을 받는 등 결실을 맺었다. 상덕 스님은 50여 년간 성동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 미타사 정수암 주지 소임을 보면서 어린이·청소년보호와 거사회·신도회 등을 설립하고 여성성직자 모임인 삼소회 활동, 비구니 꽃꽂이회 회장, 구청불자회 창립 지도법사, 한국전력 반야회 지도법사, 서울시 복지관협의회 이사 등 수많은 직함을 갖고 있다. 신행활동에 머물러 불자들을 지역별, 나이별, 직장별로 모아 신행회를 창립하고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던 스님은 1996년 복지관을 세우고 부처님 자비를 나누겠다는 서원을 하던 중 성동구에 복지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바로 구청장을 찾은 스님은 “이 지역에서 50여 년을 가까이 살았으니, 주민을 위해 봉사하게 도와 달라. 천년고찰이 주민을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스님의 믿음직한 모습을 본 구청장은 스님께 운영을 위탁했고, 상덕 스님은 서울시에서 비구니 최초로 사회복지관장을 소임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고 있다. 구릉지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 감개무량하다는 상덕 스님은 “사찰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운영한다. 부처님 자비로 복지를 실현하면 인연이 인연을 낳고, 공덕이 공덕을 낳는다”며 “우리의 운영 원칙은 ‘투명’이다. 6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투명한 마음으로 일한다”고 성공비결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를 바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신뢰하는 일터, 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복지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평균연령 77세, 실버연극제 동상 수상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서 열연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은 ‘노인, 새 되어 날다’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열풍 속에서 고향마을을 지키려는 다섯 노인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이 거창실버연극제에서 동상과 개인 우수 연기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5월 23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에 따르면 조경호(83), 조국래(82), 김만수(68), 황복연(83), 강형자(70) 어르신으로 구성된 센터 내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이 최근 폐막한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 ‘활기찬 실버, 즐거운 연극,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5월 6~16일 경남 거창연극학교 장미극장에서 열린 연극제에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전북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노인단원이 참여해 기와 열정을 발휘했다.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은 ‘노인, 새 되어 날다’라는 제목으로 재개발 열풍 속에서 고향마을을 지키려는 다섯 노인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직접 무대를 꾸몄을 뿐 아니라 각자 맡은 인물에 감정을 이입해 대사와 연기를 직접 구성하는 등 공연의 주제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극중 ‘옥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황복연 어르신은 빼어난 연기력으로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만수(68) 할아버지는 “이번엔 동상을 받았지만, 관객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면서 하루하루 사는 설렘을 느낀다. 연극을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처음에는 일반 교육반으로 수년간 진행되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 심화교육과정으로 편입됐다”며 “그 결과 노인인 주도하는 공연예술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조정옥)과 5월 23일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역 사회 내 노인학대 및 피해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의뢰를 통해 학대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노인학대에 피해상당에 대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오신날 지나도 보시 이어져

세민·도명·태성·종후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전달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난 뒤에도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이 소외이웃에 써달라며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도명 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5일 통도사에서 지역사회 이웃에 사용될 바리새약 695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종교등학교 청소년 20명과 대학생 14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됐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봉축 선물도 전달됐다. 또한 아름다운동행은 독거노인 112명에게 생활비를, 25곳의 경로당에 운영비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위해 미야방지 아동용 네임택 3000개도 전달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은 5월 21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실에서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세민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삼성암 총무 일진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 부처님의 자비



통도사 주지 도명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헤일 스님(왼쪽)과 삼성암 총무 일진 스님. 일 500만원을, 같은 날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이 2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밖에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이 5월 24

발달장애 아동 양육 대처법 특강

이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교육 6월 4일부터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신은화)은 6월 4일~7월 16일 7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발달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 △가정지도 및 상호작용 방법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인천장애인부모회 박태성 회장, 센터장연구소 이경아 소장,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

육과 최민숙 교수, 광운대학교학원 최윤희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이번 교육은 아동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정 지도 방법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교육은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명이 모집되면 마감된다.(031)637-6720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양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무료 보시 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개 사찰)

소장 : 김은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高音質 무선마이크

파워디스크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은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